

종합·해설

내달 중순 후보 공모, 공천 심사 돌입

여야 4월 총선 준비 어떻게 진행하나

◇여·야 총선 공천 일정(예정)

Table with 2 columns: Party (민주당, 한나라당) and Schedule (1월 30일, 2월 1~2일, 2월 9일, 2월 중순, 3월 15일) with corresponding activities like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and '후보 공모'.

민주, 공심위 이번주부터 지역구 기초 실사
한나라, 내달 20일 전후 현역 의원 여론평가

여야가 이번주 내에 4~11 총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어서 '공천 정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후보자 공모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공천심사를 본격화하면 경선 등을 통해 3월중하순에 '여야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물갈이와 인적 쇄신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우선 예비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후보를 걸러내는 작업이 이뤄진다.
공심위에 지역구 여건과 예비후보의 경쟁력 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구별 기초실사는 이번주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공심위는 먼저 단수후보 지역, 일부 전략공천 지역의 후보부터 확정된 뒤 나머지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경선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후보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한나라당=한나라당은 이번주 초 공심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공심위를 구성하면 곧바로 공천후보자 공모에 들어가 가능한 다음달 10일까지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공모가 마무리되면 공천 심사가 본격도에 오르게 된다. 공모 신청자뿐 아니라 비상대책위원 인제영입분과에서 추천한 인재들도 함께 공심위의 검증받게 된다.

다음달 하순이면 전략공천지와 단수후보 지역구, 공천제 대상자인 '현역 하위 25%' 등이 모두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지역구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에서 3월 초까지 '개방형 국민경선'을 거쳐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진보당=통합진보당은 다음달 4일이면 총선 후보자를 모두 확정해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 태세에 돌입한다. 현재 160여개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확정되고, 4일까지 10여개 지역구에서 경선이 마무리된다.



지구환경 전망 정부간 회의 개막
UNEP(유엔환경계획)의 '제5차 지구환경전망 보고서(GEO-5)'를 확정짓는 '지구환경전망 세계 정부간 회의'가 29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석패율제 암초에 야권연대 '배격'

통합진보 반발에 민주당 지도부 고심
4·11 총선을 앞두고 연대를 계획 중인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석패율제 문제를 놓고 마찰을 내고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에초 석패율제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가 도입에 합의하고 이에 통합진보당이 반발하자 민주당 새 지도부는 종합적인 검토에 나섰다.
지도부 대다수가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의 대상인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하는 기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6일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석패율제의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자, 타협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광주·전남 3선 이상 현역 물갈이 대상?

민주당 정책연구원
혁신적 공천방안 제안
다선의원들 긴장 고조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당 정책연구원이 만든 '혁신적 공천방안'이 흘러나오면서 '물갈이 공천'에 대한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지난 25일 한영숙 대표에 전달된 문건은 호남 및 야권 우세지역 3선 이상 현역의원이 불출마하거나 여당 현역의원 지역에 출마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3선 이상 국회의

원은 모두 27명으로, 전체 의원 89명의 30.3%며 호남 지역구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동영, 정세균, 김효석, 유선호 의원 등은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고, 정장선 의원은 불출마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천재배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여명 가량의 불출마나 격전지 출마 대상이 될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이낙연, 박상천, 김성곤, 김경진 의원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부정부패 연루자는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철재 정치인'을 공천에서 제외해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제안했

에 호남 다선의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
전남지역 다선의원 측에서는 "당의 싱크탱크라는 곳에서 최소한의 명분과 현실성도 없는 방안을 내놓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공천해서는 국민적 감동이 반감되고 오히려 내부 반발만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정책연구원이 공천의 기준을 마련할 권한이 있는 조직이 아니냐는 문건 자체도 말 그대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상호 전략홍보본부장은 "공천심사 기준과 원칙은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된 뒤 논의될 사항"이라며 "공천 원칙에 대해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Cartoon titled '빛의만평' (Light's Review) by Kim Jung-woo. It depicts a man holding a sign that says '당명통합' (Party Name Integration) and another sign that says '도로그당' (Road to the Party). A speech bubble says '쉽게 가자!' (Let's go easily!).

Large advertisement for '자유투어' (JAYU TOUR)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It includes sections for '중국' (China), '일본' (Japan), '미주' (USA/Canada), '동남아' (Southeast Asia), '유럽' (Europe), and '호주 뉴질랜드' (Australia/New Zealand). Each section lists destinations, dates, and prices. The ad also features a 'PIC 골드' (PIC Gold) section and a '연계여행' (Continuation Travel) section.